

보리풀 작품집 I.

# 두업터미

정신 한 한  
크게 지  
땀

민화 비평관을  
다시 부활시켰으면...

·총 800-21 이 원오

! 페이지를 없애  
수들의 입장에서  
이낼 수 없다. 민

1 조 한이

## 민화의 올바른 인식과 의

영화나 소설 등 다른 분야에서는 비평  
이 활발한데 민화에서는 비평가가 **어디** **바리다**  
있을까 하는 의혹마저 들게 한  
민화광장에서 몇 분이 비평가가 **어디** **바리다**  
고 민화계에도  
각이 들었

미술뿐만 아니라 민화의  
되어가는 민화의  
노익삼이 든다. 민화광장을 보  
89년 20대 초반에 보  
그동안 민화광장을 보  
10대 후반  
정성용, 홍용, 김민희, 송합지라고  
정성이 귀하고 민화광장이 성인민화 종합지라  
"민화아카데미"라는  
"민화아카데미"라는  
"민화아카데미"라는



두업터미 : 풍, 그밖의 온갖 잡살뱃이를 썩힌 거름터미.

두업터미

보리풀 작품집 I



# 두엄터미



## 민화 비평권을 다시 부활시켰으면...

영화나 소설 등 다른 분야에서는 비평이 활발한데 민화에서는 비평가가 안 나올까 하는 의문마저 들게 한다. 민화광장에서 몇 분이 비평을 한 민화광장에도 '가이 들었'다.

### 민화의 율배를 인식라 이

금년 민미협(민족미술협회의 민화분과)에 박재동(한겨레신문 만평담당)씨가 선출됐다. 취임 인사에서 박재동씨는 '민화광장은 상인민화 종합지라고 하면 상인민화인식의 율배를 이끄는 동인지'라고 말했다. '민화광장은 상인민화 종합지'라는 말이 아닌 '상인민화'라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민화광장을 보자'는 말도 '민화광장을 보라'는 말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민화광장을 보라'는 말도 '민화광장을 보라'는 말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 민화광장을 보라

두엄터미 : 풀, 그밖의 온갖 잡살뻥이를 썩힌 거름터미.

\*종 800-21 이현오

이제 이 일을 할 수 없다. 민화광장을 보라

조현이

## 창간화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

최종선

찬기운이 바지밑으로 스물스물 기어올라 오는 저녁 무렵,  
길가에 늘어선 포장마차의 오뎅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  
올라오는 걸 보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맛과 기억에 발걸음을  
멈추곤 한다.

어릴 적 동네 만화방에서 해가 진지 오래된 것도 있는데 어머  
님에게서 울궀낸 삼깃돈으로 만화를 보며 먹던 오뎅국물 맛이란--  
!

난로 위에서 끓는 오뎅 국물에 입천장을 태어도 만화에 푹 빠  
져 알지 못하다가 부모님 몰래 방에 들어가서야 벗겨진 입천장의  
쓰라림에 잠을 설쳐도, 어떻게 하면 엄마에게 용돈을 얻어내 만화  
를 보고 오뎅을 먹을 수 있을까를 궁리했던 기억들!

잠이 들어서도 만화의 주인공이 되는 꿈을 꿀 정도로 만화를  
좋아했던 나는 지금도 만화를 보면 꼬박 밤을 세울 정도로 누구  
보다도 만화를 좋아한다.

그러나 요새 만화를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소름이 끼치고  
섬뜩할 정도로 잔인한 폭력 장면들, 낯 뜨거울 정도로 야한 선정  
적인 장면들을 보면 혹시 자식놈들이 보지 않을까 염려하며 방구  
석에 치박아 둔다.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고 어디서나 즐길 수 있  
는 만화가 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저질 시비에 휘말려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지금까지의 만화가 만화출판사의 상업적요구와 맞물려 주  
로 오락적이고 소비적인 기능만 담당하여 일반 사람들에게 만화는  
우스꽝스럽거나 황당하고 유치한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  
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만화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만화가들이  
만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상업적 요구에  
편승하여 대중들의 왜곡된 정서와 욕구를 자극하는 만화를 양산하  
였는데 그 결과 만화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꼴이 되어 버  
린 것이다.

이렇게 상업주의 만화가 판을 치며 양산되는 현실에서 만화가  
예술작품으로서 올바른 기능과 역할을 하며 친근한 대중매체로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화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만화의 내용이 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만화의 내용이 재미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만화적 재미라는 것은 상업만화에서 성과 폭력을 중심으  
로 유치한 말장난이나 단순한 만화적 장치에 의한 선정적이고 말  
초신경적이며 감각적인 재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짜여진 구  
성으로 극적인 갈등과 긴장 구조를 잘 유지하면서 한 번 만화책  
을 잡으면 그 내용에 빠져 손을 놓지 못하게 하는 내용적 재미  
를 말한다.

다음으로 만화의 내용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는 것인데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뒤돌아 볼  
수 있고, 읽고 난 후에도 힘이 생기며 진한 감동을 줄 수 있어  
야 한다.

이처럼 만화의 질적 변화를 위한 내용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이야기 작가가 필요한 것이다. 만화는 글과 그림이 결합  
된 매체인데 만화가 전문화되고 분업화되면서 글과 그림의 분리가  
이루어져 글만 전문으로 담당하는 사람이 만화 이야기작가이다.

만화 이야기작가의 모임인 '보리밭'은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 바른 만화를 쓰기 위하여 만든 동아리다. 보리밭 갈 땅에 거  
름하기 위하여 뻥 풀이라는 뜻인 '보리밭'은 바른 만화가 활짝  
피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거름이 되고자 만화 이야기작가  
를 지망하는 사람들이 만든 모임이다.

'보리밭'은 상업만화가 갖는 내용을 비판하면서도 제도권 만화  
의 성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새로운 만화의 질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우리 '보리밭'은 두번의 강습을 통하여 만난지 언2년이 되었  
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2년의 세월동안, 보리밭은 힘겹고 무  
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작업이 잘 안 될 때는 비틀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다리가 뻘뻘거리며 걸어왔다.

그 발자취를 뒤돌아보며 그동안 습작한 작품을 그대로 남겨둘  
수 없어 작품집을 만들었다. 각 회원들이 쓴 작품이 습작에 불과  
한 것이어서 발표하기에는 부끄러운 점도 있지만 올바른 평가를  
통해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작품집을 펴낸다. '보리밭' 식구  
들은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 적어서 창작한 시나리오나 콘  
타를 그림으로 그리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작품 중 [두엄 하나]의 작품들은 제도교육과 입시교육의 문제  
점 때문에 송현이라는 학생이 자살할 수 밖에 없는 우리의 교육  
현실의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는 한가지 기획안을 토대로, 회원  
각자가 시나리오와 콘타를 짰 것이었다. 같은 기획안이지만 회원들  
의 기획안에 대한 해석과 경험의 차이에 따라 내용의 전개와 장  
면연출이 다르게 표현되었다. 같은 기획안에 다른 시나리오와 콘타  
를 같이 실어서 서로 비교해볼 수 있어 좋은 공부자료가 될 수  
있었지만, 지면 관계상 모두 실을 수 없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  
는다 [두엄 둘]의 작품은 <사랑으로 크는 나무>라는 소설을  
한편씩 뽑아 각색한 것이고, [두엄 셋]의 작품은 회원들의 관심있  
는 분야와 생활 속에서 느끼며, 쓰고 싶은 것을 개인 창작한 것  
이다. 회원들마다 여러 편을 창작하였는데 지면 관계상 모두 실을  
수 없어 안타깝기만 하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작품집을 내면서 가슴이 설레이며 기쁘기도  
하지만 그동안의 과정을 뒤돌아 보면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창  
작하지 못한 아쉬움과 부끄러움이 남는다.

그러나 시작은 지금부터다.  
 어릴적 만화방에서 먹었던 오뎅 국물처럼 잊혀지지 않는 만화!  
 자식놈에게 자랑스럽게 사 줄 수 있는 만화!  
 꿈 속에서도 진한 감동으로 되살아나는 만화!  
 이런, 바로 이런 만화를 쓸 날을 기대하며...

1992년 10월.

차례

1. 참만화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최종선—	2~4
2. 차례—	5~6
3. <b>두엄 하나</b> —	7
(기획안)	
단편극화 기획안—안강석—	8~9
(시나리오)	
새벽을 여는 합성—김지나—	10~20
하얀 나비—최해옥—	21~26
(콘티)	
새벽을 여는 합성—김지나—	27~64
지희가 원하는 세상은요!—박상배—	65~102
4. <b>두엄 들</b> —	103
(시나리오)	
오골계와 물마—백정숙—	104~109
꿀찌를 위하여—유미숙—	110~116
힘찬 발걸음—김지나—	117~127
무노동 무임금—유미숙—	128~132
5. <b>두엄 셋</b> —	133
(기획안과 시나리오)	
여성신문 기획안—김지나—	134~136
(시나리오)	
빨간모자와 오락실—김지나—	137~145
지장보살—박상배—	146~154
서울 손오공—박상배—	155~158
응급실 이야기—박상배—	159~163
단맛—박상배—	164~168
해후—유미숙—	169~176
도술천의 승천—강경희—	177~204
우리의 꿈—채덕신—	205~220
사람이 아니올시다, —채덕신—	221~235
짐승이 아니올시다.	
보람이의 하루—최해옥—	236~238
금니빨—백정숙—	239~254
(콘티)	
사상누각—문예선—	255

(그림)	어머니, 이제 눈물을 거두세요—오영진	256~281
	봄은 이야기 그림마당 —————장희진	282~283

6. 두엄 뱃 —————284

(글)	만화 장면연출법 —————안강석	285~304
(논문)	만화 이해의 본질론 —————채덕신	305~321

# [ 두엄 하나 ]

단편극화 기획안을 토대로 회원 각자가 시나리오와 콘티를 짰 것이다. 같은 기획안이지만 회원들의 각기 다른 정서와 경험에 따라 그 기획안을 해석하는데에 차이가 나면서, 내용의 전개와 장면연출등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한가지 기획안에 여러가지 시나리오, 콘티를 함께 실어서 서로 비교해 볼 수 있으면 좋은 공부가 되겠지만, 지면 관계상 모두 실을 수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 (단편극화 기획안)	—————안강석	—————8~9
* (시나리오)		
—새벽을 여는 함성	—————김지나	—————10~20
—하얀 나비	—————최해욱	—————21~26
* (콘티)		
—새벽을 여는 함성	—————김지나	—————27~64
—저희가 원하는 세상은요!	—————박상배	—————65~102

# 단편 극화 기획안

안 강 석

1. 제목 :
2. 주제 : 입시 제도로 인한 비인간화, 비주체화되는 교육의 문제점
3. 등장인물 :  
김송연 - 주인공으로 감수성이 예민하고 내성적인 성격  
학교 성적은 우수한 편이고 가정 형편은 중상층  
박옥선 - 가난 때문에 대학을 포기한 송연의 친구  
성격은 외향적이며 괄괄한 편. 학교에서는 문제아로 찍힘.
4. 줄거리:  
꿈 많고 감수성이 풍부한 송현이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고 친구와 맘껏 뛰놀며 우정을 간직하고자 한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입시 위주의 수업, 내신 성적 반영이라는 울가미 때문에 친구들과의 경쟁심과 이기심, 시험에서의 친구들 간의 불신감 등 질식할 것 같은 입시 교육의 현장에서 송현이는 박제되어 가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리고 송현이는 미대를 진학하고 싶어하나 인류 대학만을 고집하는 부모님과의 갈등에서 고민하고 괴로워 한다. 더구나 송현은 자기의 유일한 친구인 옥선에 대한 학교와 부모님의 비인간적인 태도에 몸서리치며 옥선이 학교를 떠나는 충격으로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다.
5. 콘티 잘 때에 유의할 점
  - ① 송현이가 자살할 수 밖에 없었던 심정을 설득력 있게 묘사
  - ② 옥선의 성격 묘사에서 문제아로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심지 깊은 인간적인 면모를 잘 처리
  - ③ 학교 생활과 부모님과의 갈등은 현장감 있게 구체적으로 묘사
  - ④ 회상 장면과 자살하는 장면 처리는 창조적인 구상을
  - ⑤ 복선처리에 유의
  - ⑥ 제도 교육의 문제점을 드러 내려는 목적의식성이 앞서지 않게
  - ⑦ 송현의 유서는 심금을 울리게
6. 내용
  - 1) 생물시간 - 입시 위주의 학교 수업과 내신성적 반영으로 인한 친구간의 경쟁심과 이기심을 보여주는 장면  
0 생물 시간에 나비를 박제하는 장면  
0 송현이가 나비의 생태에 관한 질문을 하나 선생님은 그것은 시험에 안나온다며 박제하는 순서와 유의할 점만 암기하라고 함

- 0 송현이는 옆 친구에게 공책을 빌리려하나 공책 정리도 내신 성적에 반영된다고 거절 당함  
0 이를 지켜본 옥선이 공책을 빼앗아 친구 얼굴에 던짐
- 2) 미술실에서 - 송현이와 옥선이 관계  
0 송현과 옥선의 대화 : 미대를 가고 싶으나 부모님이 반대한다며 고민을 털어 놓는 송현  
0 송현이가 나비를 날리며 : 나비가 불쌍해서 박제를 할 수 없었다며 나비처럼 훨훨 날고 싶다는 송현  
0 송현이가 수업에 들어가지 말고 뒷동산으로 그림 그리러 가자고 제안하자 옥선이 망설이다가 승락
- 3) 교무실에서 벌서며 - 옥선의 우정을 잘 나타나게  
0 교무실에서 선생님이 수업 빠진 것에 대한 추궁: 옥선이 자기 잘못이라고 함  
0 옥선에 대한 훈계와 멸시  
0 옥선에 대한 징계: 부모님 모셔 오고 반성문 제출  
0 선생님이 시험보러 가라고 함
- 4) 시험시간  
0 시험지를 받고 송현이가 회상하는 장면:엄 마가 성적이 떨어 졌다고 꾸짖는 장면  
0 선생님이 권닝하는 사람 쪽지에 적어 제출하라고 함  
0 옥선이 시험 시간에 소설 책 읽다 선생님에게 뺨 맞음
- 5) 송현과 엄마와의 갈등  
0 송현이가 그리던 그림을 찢으며 꾸짖는 엄마  
0 옥선이 송현이를 찾아오나 엄마가 문도 열어 주지 않고 인터폰으로 옥선에게 욕설  
0 울며 뛰쳐 나가는 송현이
- 6) 옥선의 집  
0 누워 계신 엄마를 간호하는 옥선과 옆에서 지켜보는 송현  
0 교무실에서의 행동과 시험을 안 본 이유를 듣고 감동하는 송현  
0 송현과 옥선이 우정을 다짐
- 7) 송현이 자살  
0 송현이 비어 있는 옥선의 자리에서 운다  
0 회상장면: 옥선이 징계와 어머니 병 때문에 학교를 그만둠  
0 송현이 어둠이 깔리는 운동장을 내려다 보며 박제되어 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  
0 나비처럼 자유롭게 날고 싶다며 투신 자살  
0 옥선에게 유서 남김

# 새벽을 여는 함성

김 지 나

노동이다 노동  
아니 징역 3년을 받은 죄수에게  
던져진 가혹한 형벌이다  
새벽녘 어제의 달이 미쳐  
지지도 않을  
무거운 하늘을 이고, 돌 캐러 간다.

죄수번호 21060, 소속 00여자수용소  
손이 부르듯도록 머리가 깨지도록 돌을 켜다.  
선생님들은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열심히 쉬지말고 파보라고 하시지만  
내 앞에 쌓이는 건  
내 손에 쥐어지는 건  
쓰잘 데 없는 자갈뿐이다

사랑이란 단어, 잊은 지 오래고  
꿈이란 풍선, 터져버린 지 이미  
오래다.

보물찾기 - 대학  
지각이 아무리 변화해도  
놀이 대학이 되진 않는데...  
나같은 바보는 모를 세상이다.

# 1, 어스름한 새벽 별 보며 학생들 지친듯 띄엄띄엄 등교하는 모습

학생1: 아구! 배고파. 실험이고 자시고 밥이나 먹었음.

학생2: 누가 아니래. 도시락 까먹을 시간도 없잖아.

3교시 수업이 끝나는 종소리와 함께 이동수업 준비를 위해 아이들이 부산하게 움직인다.

송현, 옥선 복도를 걸으며

송현 : 엄마는 좀 어떠시니?

옥선 : 그냥 그래.. 쉽게 날 병도 아니고

송현 : (시무룩하게) 오늘 실험... 생각만 해도 끔찍해.

옥선 : 생각하구 자지구 할게 뭐 있어. 암튼 넌 그게 병이야.

과학실이라는 낱말이 보이고 두서너 명이 과학실에 가까워 왔다. 실험대에 앉아 있는 학생을 향해 실험 설명을 하는 선생님이 보인다.

교사 : 저번 시간에 자세히 공부했으니 오늘은 여기 준비한 차트를 봐가면서 실험을 시작하세요. 궁금한게 있으면 질문하고...

송현 : (잠시 머뭇거리다가) 손을 든다.

교사 : 어! 그래, 송현이!

송현 : (자신 없는 소리로) 저- 나비의 날개빛이 너무 신비하지요. 그 빛깔을 내는게 뭔지...

교사 : 그런 건 시험에 안나올테니 신경 끊도록. 여기선, 복제 순서와 유의점만 암기하면 돼. 알겠죠?

학생들 : 예-

당혹해 하는 송현의 얼굴 보인다. 실험에 암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크게 보이고 그 중 송현의 조가 보인다. 마지막 발버둥 처럼 날개를 퍼덕이는 나비가 크로즈 업 되고 한 구석에서 송현은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이를 지켜보고 있다.

지문 : 한낱 힘 없는 나비조차 자유를 위한 최후의 몸부림을 잊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 2, 회상 : 어느날 밤 현관문을 나서려는 송현

엄마 : 애, 다 저녁 때 어딜 가려구.

송현 : 물감이 갑자기 떨어져서...

엄마 : ... ..

송현 : 전 그림이 좋아요.

엄마 : 애가 점점, 미래는 너 같은 애가 가는 곳이 아니야. 605호 미정이 처럼 대학은 가야겠는데 머리가 돌인 애들, 억지로라도 대학보내려고 시작하는 게 그림이야.

(플 죽은 송현의 머리위로) 또 그 소리 하면...

송현 : (절망감에 휩싸여 마음 속으로) 엄마, 제발...

# 3

같은 조 학생 : 송현아! 네 옆에 알콜 좀 집어줘.

송현 : (영겁결에 회상에서 벗어나며) 어, 응.

송현, 다시 서서히 박제되어 가는 나비를 본다.

지문 : 너의 자유로운 비상은 바로 네 생의 전부였다. 따라서 자유를 결박당한 순간 너의 존재 또한 허무러져 버렸다. 그렇다면 나에게도 자유는 존재를 위한 절대조건이 아닐까?

자유롭게 날던 나비, 날개를 퍼득이며 박제돼가는 나비, 마침내 박제된 나비가 차례로 그려진다.

다시 실험이 마무리돼가는 교실의 정경이 보이고 그 위로 교사의 목소리 들린다.

교사 : 거의 정리 돼가죠? 반장은 오늘 종례후 실험보고서를 걷어서 나한테 가져오도록 해요. 이만, 마칩시다.

반장 : 차렷, 경례.

아이들 : 감사합니다.

옥선 : (송현을 톡치며) 뭘 생각을 그리 하루 종일 했니?

송현 : 아니야. 아무 것도. 그냥. 줌. 참. 옥선아, 노트 좀 빌려줘. 필기를 못했거든. 점심시간에 정리해놔야겠어.

옥선 : 나야 이미 베린 몸. 나 필기같은거 안 하는 거 몰라? 너네 조 애들에게 빌려봐.

송현 : 그래. 경숙아, 노트 좀.

경숙 : 안돼. 승부의 세계는 냉혹한 법이러는데. 노트 정리도 다 내신 성적인 걸 모르니?

옥선 : 뭐? 그걸 말이라고 해. (노트를 잡아채어 경숙의 얼굴에 던진다.) 너 같은 처사한 종자들 때문에 세상이 요모양 요골인 거야!

경숙 : 아니, 저게. 니 주제나 파악해. 꿀갑도 유분수지. 공부도 더럽게 못하는 주제에. 입은 찌졌다고...

옥선 : 저걸, 그냥.

송현 : 옥선아, 그만 해.

# 4

송현과 옥선 층계를 내려간다.

송현 : 기분도 그런데 미술실이나 가자.

옥선 : 세상에, 기두 안막혀. 인간성이 여기까지 왔으니 종말이 코 앞이야. 코 앞.

송현 : 그래야 사는 세상인데 누굴 탓하겠어.

멀리 미술실이라는 낱말이 보이고 점점 다가간다.

옥선 : 가을 전시회 때 작품낼꺼야?

송현 : 글썽, 전시회 출품한 걸 알면 또 한바탕 난리가 날 거야. 넌? 준비 잘돼가.

옥선 : 그냥 그래.

미술실 내부의 모습. 송현이 테이블위에 소지품을 놓더니 허겁지겁 필통을 연다. 필통 속에서 나비를 꺼내 창가로 향한다.

지문 : 내겐 너의 자유를 짓밟을 권리가 없다. 어느 누구도 사랑이란 이름으로, 혹은 규범이란 이름으로 티인의 자유를 억압할 순 없다. 자, 맘껏 날아라. 끝없이 펼쳐진 하늘과 대지를 향해.

창가에서 돌아와 동 터오는 새벽하늘을 날아오르는 새를 그리지만 이젤 앞에 앉는다.

송현 : 아까 회후의 발악처럼 날개를 퍼득이는 나비를 보면서 너무 참혹한 기분에 빠졌었어. 가끔씩 나도 보이지 않는 힘들에 밀려 정해진 틀속으로 떠밀려 들어가는 걸 느끼곤 해. 그래서 박제가 돼 가는 나비의 모습이 바로 나를 보는 거 같았어.

옥선 : 요즘 왜 그래? 집에 뭘 일 있는 거야?

송현 : (의자에서 일어나 다시 창을 향하며) 그림을 그리고 싶어. 살아 있는 모든 생명들, 그 꿈틀대며 생동하는 모습들을 보면 어떤 종류의 삶의 희열 같은 거, 그런게 느껴져. 그걸 그려내고 싶어.

옥선 : 그래서? 어떻게 할 작정인데

송현 : (새 그림을 지긋이 바라보며) 부러워. 날개를 가진 모든 짐승들이. 물론 어느 시인의 말처럼 자유를 위하여 비상해 본 적 없는 사람이 어떻게 노고지리의 피맺힌 자유를 이해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은 들지만 말야.

어느새 점심시간 끝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온다.

송현 : 바로 저 소리야. 저렇게 우리 주위에 널려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억압하려 들어. 정말 질식할 것 같은 기분이야. 옥선아. 우리 뒷산에 가서 그림이나 그리자. 응.

옥선 : (잠시 머뭇거리다) 조오타 좋아.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이러는데 까짓거.

날씨 맑고 화창한 뒷동산에서 화구를 펼쳐놓고 그림그리는 두 아이의 모습이 밝게 그려진다.



# 5

교무실이 보이고 문밖으로 양칼진 교사의 목소리 들린다.

담임 : 아무튼 강심장들이야, 강심장.

교무실 안. 교사 앉아 있고 고개를 숙인 두 아이 보인다.

담임 : 어디 학생이 지 멋대로 수업을 빼먹어. 애들이 아주 근본이 글러먹었어. 그래 선생이 목터져라 가르치는데 듣기 싫다고 수업을 안들어 간다는게 말이나 돼! 영! (책상을 팡 친다)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얘기나 들어보자.

송현, 옥선 말 없다가 송현이 나선다.

송현 : 사실은 제가 옥선이더라...

말 꺼내기 무섭게 옥선이 조금 앞으로 나서며.

옥선 : 아니예요. 선생님. 제 잘못이에요. 수업 듣기 싫어서 제가 송현이더라 그림그리러 가자구...

담임 : (앞에 있는 책을 들어 옥선의 머리를 세게 친다) 그걸 말이라구 해. 영! 이젠 아주 선생님들까지 우스워 보이는 모양이지? 그래 막말로 내가 대학진학을 포기했다고 쳐! 왜 송현이까지, 잘 하고 있는 애까지 니꼴루 만들려고 그래!

송현 : 아니예요. 정말. 제가 먼저...

담임 : 얼씨구. 그것도 우정이라구, 눈물 겹다. 눈물 겨워.

주변의 선생님들이 한마디씩 거든다.

교사1: 요즘 애들 갈수록 멍랑하단 말야.

교사2: 김 선생, 아주 따끔하게 혼내서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으세요.

교사3: 쫓쫓, 송현이 제가 왜 저렇게 마음을 못잡을까?

담임 : 이건 간단하게 처리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야. 학교 기강의 문제라구. 과목 선생님께서 어찌나 화가 나셨는지 내가 볼 낮이 없더라. 일단 다음 시간, 시험이라니까 올라가 보도록 하고 둘 다 방과후 반성문 제출하도록 해. 그리고 옥선은 내일 당장 부모님 모셔와!

송현, 옥선 잠시 꾸물대다 꾸벅 절하고 올라간다.

담임 : 큰 일이야, 큰 일. 못된 물은 쉽게 든다는데. (등 뒤에 대고 혼잣소리 한다.)

# 6

아이들이 교실에 앉아 시험 볼 양으로 막판 암기를 하는 등 보통 쉬는 시간과는 다른 분위기이다.

학생1: 잇 이즈 베리 카인드 어브 유 투 샌드 미 서취어 나이스 프레즌트.

학생2: (조급한 목소리로) 오늘 시험. 연습문제하고 그래머에서 나온다고 했니?

학생1: 어떻게, 어휴.

벨이 울리고 아이들의 한숨소리 간간히 들린다. 담당과목 선생님이 시험지를 들고 들어오신다.

교사 : 대학입시는 시험이 아니라 전투다. 문은 극히 좁고 들어갈 사람은 무수히 많아. 내가 한눈 팔때 다른 사람이 깨어 있다면 그에게 남은 건 '낙오자'라는 치욕스런 이름뿐이야. 정기시험이 아니라고 알보지 말고 최선을 다하도록.

학생들의 긴장된 표정. 유달리 벌벌 떠는 한 학생의 모습이 클로즈업된다.

시험지를 앞에 둔 송현 두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괴로워 한다.

지문 : 우리들에게 꿈은 사치일까? 보다 먼 미래를 꿈꾸는 사람은 장님취급 당하고. 중요한 건 코 앞에 닥친 입시라는 괴물 감옥 같아. 아니 지옥 같아. 삶이 고작 이런 거라면...

회상으로 이어짐. 송현 자신없는 표정으로 중간고사 성적표를 엄마에게 내놓는다.

송현 : 저, 엄마.

엄마 : (싸늘한 음성으로) 송현아. 너 이 엄마의 꿈이 뭔지 알지? 온 가족이 대학동창회에 나가는 거야. 얼마나 근사해? 네 아빠의 뒤를 이어 오빠, 언니, 모두 잘 따라줬어. 이제 남은 건 너 뿐이야. 근데, 대체 이 성적이 뭐냐? 어쩔 생각이야? 어디 말 좀 해보렴.

송현 : (싸늘한 엄마의 표정과 말에 질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잘 할게요. 다음 시험에는.

엄마 : 그 말 믿어도 되겠니.

지문 : 그말 믿어도 되겠니? 그말 믿어도 되겠니?

흔든스러워 하는 송현의 뇌리 위로 쏟아져 내리는 엄마의 집요한 질문. 갑자기 뒤에서 야단치는 선생님의 소리에 정신을 차린다.

교사 : 김옥선, 책상 밑에 있는 거 뭐지?

옥선이 머뭇거리자 교사가 나서서 책상 밑을 뒤진다.

교사 : (그 책으로 옥선의 머리를 치며) 나의 라임오렌지나무? 누가 건방지게 시험시간에 제멋대로 책을 읽어? 영. 반항하는 거야? (잠시 분을 삭임. 시선이 쏠린 아이들을 돌아보며) 자- 신경쓰지 말고 계속 시험보도록 해요. 그리고 김옥선 시험 끝나고 보자.

송현 : (조심스럽게) 아, 옥선아, 어찌려구.

다시 시험에 열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인다. 복도에 시끌벅적한 다른 반 아이들의 소리.

교사 : 자, 이제 정리하고, 각 1번 일어나서 시험지 걷도록 하세요. 마지막 시간이지?

잠시 나가지 말고 자리에 앉아 있어요.

시험지를 걷는 모습들. 약간 술렁거린다.

학생1: 아웃 앤드 어웨이 하고 같은 게 뭐야?

학생2: 바이 화일걸..

교사 : 자 조용히하고 종이 한 장씩 꺼내도록해. 거기다 컨닝한 사람있으면 주저말고 적어내요. 이제 쪽지시험들도 다 내신에 반영되는 거 알면서 컨닝하는 건 도둑질 행위야. 그리고 김옥선, 이리 나와. (힘없이 걸어 나온다.) 왜 시험 안봤지?

옥선, 말없이 발끝만 내려다 본다.

교사 : 아까 보니 저번 시간은 빼먹은 모양인데 그것도 친구까지 꼬셔서. 오늘일 그대로 넘어가지 않겠어. 징계감이야, 징계감. 그래, 니가 대학을 가든 안가든 그건 네 자유야. 그렇지만 내가 니멋대로 행동하면 학교 규율은 뭐가 되겠어?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시내를 흐린다더니.

옥선 :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학교가 대학단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사 : (옥선의 뺨을 치며) 이게 건방지게 뭘 잘했다고 말대꾸야!

옥선 : 그래요. 전 대학 안가요. 아니 못가요. 학교가 그런 저에게 무엇을 줄 수 있죠?

저도 이따위 학교 더 다니고 싶은 마음 손톱만큼도 없어요.

옥선, 울부짖으며 뛰쳐나간다. 송현의 우울한 얼굴 c.u.

교사 : 아니, 저, 저게.

#### # 7

어둠이 깃들 무렵 불도 켜지 않고 덩그러니 책상앞에 머리를 감싸안고 있던 송현. 학교에서의 일들을 떠올리며 괴로워한다. 교무실에서 혼나던 장면, 울부짖으며 뛰쳐나가는 옥선의 모습...

지문 : 모든 사물들 사이로 어둠이 촘촘이 물려온다. 빛의 알맹이들은 끊임없이 쫓겨가고 내 존재의 공간은 서서히 암흑에 휩싸인다.

스탠드만 켜진 어두운 방안. 스탠드 아래 송현의 얼굴만 보인다. 송현 불현듯 벌떡 일어나 불을 켜고 이젤 앞에 앉아 그림에 몰두한다.

엄마 : (송현의 방 앞에서) 아니 애가 뭘 하느라 저녁먹을 생각도 없지? 송현아. 저녁 먹자. (송현의 방문을 열고 들어선다)

그림에 몰두해 있는 송현의 뒷모습과 무수한 새들이 동트는 새벽하늘을 향해 나는 그림이 보인다.

엄마 : 아니. 너! (엄마의 놀라는 표정) 계속 말안듣고 니 멋대로 할꺼야! (그림을 찢으며)

송현의 어둡고 참혹한 얼굴. 극도의 절망에 휩싸여 무감하게 서있다.

엄마 : 대체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이라도 한거야, 뭐야. 그리고 앞으로 다신 그 옥선인가 뭔가하는 야랑 어울려 다니지마. 아까 낮에 니 담임한테 전화왔었다. 개때문에 니 성적이 점점 떨어지는거 같다고 하더라. 아직 안늦었어. 마음만 잡으면 우리가 원하는거 문제없어!

송현, 모든 것에 지친듯 침대에 드러눕는다. 현관 벨소리 울린다.

엄마 : (방을 나서며) 누구야! 대체. (현관 앞에서 무뚝뚝하게) 누구세요?

옥선 : 송현이 있어요. 저 친구 옥선인데요.

송현 벌떡 일어나 방문 앞에 나선다.

엄마 : 우리 송현이. 있어도 없다. 니가 진짜 친구라면 앞으로 다시 송현아랑 다닐 생각 않는게 도리 아니겠니?

방문 앞에 서서 듣고 있던 송현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송현 : 엄마, 내 인생은 내가 살아요. (방안에서 잠바를 꺼내 입고 나선다)

엄마 : 애, 송현아. 어딜가. 대체 어딜가는 거야.

#### # 8

옥선과 송현 가로등 불빛 스산한 아파트 단지내를 걷는다

송현 : 옥선아. 내게 할말이 없구나. 미안다는 말밖에

옥선 : 마음 쓰지마. 난 끄떡없어. 짊어달려면 짊어 대라지. 그깟 일에 마음 흔들리면 창창한 앞날 어떻게 살라구. (옥선이 다정스레 송현 어깨를 감싸 안는다.) 봐. 저 별빛, 이 바람. 언제나 변치 않는 진리는 있는거걸랑.

가파른 고갯길을 끼고 허름한 집들이 늘어서 있다. 어둠에 잠긴 골목을 걷고 있는 옥선과 송현의 뒷 모습이 보인다. 초라한 골목이 보이고 그 중 낡은 집 대문 앞에서

옥선 : 처음이지. 우리집. 이렇게 살아, 우리.

빙그레 웃는 송현의 얼굴.

옥선 : 잠깐 들어갔다.

방 한 구석에 앉고 있는 옥선의 엄마. 그 옆에 옥선이 낮아 엄마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다.

엄마 : 옥선아. 네 고생이 말이 아니구나.

옥선 : 엄마. 걱정마. 나 하나도 안힘들어. 여태 시장다니며 고생한 엄마에 비하면 이까짓거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 친구도 왔구나. 편히 놀다 가거라.

송현 : 예 (잠시 말이 없다가) 정말 오늘일 괜찮을까?

옥선 : 아무렇게 되도 상관없어. 이 상태로 학교를 계속 다닌다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

송현 : 바보 같은 소리 하지마. 여태 잘 해왔잖아. 그리고 왜 시험을 안봐.

옥선 : 어차피 대학 포기한지 오래야. 기왕이면 나 때문이라도 다른 사람 성적이 오르면 좋잖아. 안그래.

송현 : (옥선의 손을 잡으며) 옥선아.

옥선 : 그나저나 나는 그렇다치고. 요즘 네가 더 힘들어보여. 힘내. 힘겹게 이겨내고 나면 틀림없이 그만큼의 결실이 있을꺼야. 내가 너무 진부했나?

송현 : 그래 옥선아. 하지만 너두 약속하기야 너도 선불리 학교 떠날 생각 없기로.

옥선 : 그래 그래

지문 : 절망 속에서건 기쁨 속에서건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렀다. 서로 기대며 버티자던 옥선과의 우정만으론 우리들을 에워싼 현실을 극복하기엔 너무도 벅찼다. 기말고사가 닥쳐올 즈음 나는 시험의 공포에서 벗어날 줄 몰랐고. 지각에, 결석에, 잦은 반항으로 이어지는 옥선의 생활 역시 백척간두에 서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옥선에게 불쑥 한통의 편지를 받았다. (지나온 장면 장면들이 필름돌듯 배경에 깔린다)

### # 9. 하교길

옥선 : 오늘 해가 서쪽에서 뜬 거 너 알어?

송현 : 너 또 무슨 엉뚱한...

옥선 : 이몸이 네게 편지 썼어!

송현 : 웬일이야?

옥선 : 집에 가서 봐!

송현 방안에 오자마자 침대에 앉아 편지를 읽는다.

송현아!

그간 몇번의 징계 처분하겠다는 담임의 협박에, 버티내자던 너와의 약속 떠올리며 빙글빙글. 그러다가 이제야 훌가분하게 떠나야지 마음먹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각오했던 일이야. 대학! 가면 좋지. 웬지 그곳에는 가을 수확때 처럼 술한 사상들이 능글거림 열려있을 것만 같거든.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내 앞의 현실이라는 거론에 도달했어. 함지에 나뭇 주선주선 님아 한 여음이건 한 겨울이건 시장바닥에 쭈그러 앉은 엄마의 희생위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교양있는 여대생, 그에 걸맞는 장래 남편 정도. 주위를 둘러보면 사담사는 모습이 정말 여러가지야. 특히 내 주위의 가난한 이웃들. 그들 없이 어떻게 이 사회가

건재할 수 있을까? 그들의 힘과 노력없이, 거친 노동없이 말야. 이제야 내 각이 어디에 있는지 알 것 같아 작은 공장이라도 취직할 생각이야. 나를 위해 엄마에게 거늬이 돼달라고 하지 않음테야. 작은 가정안에서라도 나 스스로 거늬이 되겠어. 고먼 많고 마운 여런 송현아. 정말 빈다. 모든 고먼 훌훌 털고 앞날을 희망차게 바라보며 정진해. 나중에 연락할게. 미안! 약속 못지켜서.

옥선 씀

편지를 읽던 송현 침대에 쓰러져 온다. 어둠이 밀려든 방안 그 자세로 꼼짝 않고 누워있다. 방 앞을 지나가던 엄마의 목소리 어렴풋이 들린다.

엄마 : 널 모레가 기말고사라더니... 제가 원.

### # 10. 쓱덕거리는 교실

학생1 : 옥선이가 학교를 그만 뒀대.

학생2 : 담임이 살 맛 나겠군

학생3 : 그나저나 요번 학기말 고사 걱정이야. 걱정

학생2 : 말마. 우리 엄마는 성적 떨어지면 이번엔 너 죽고 나 죽자 하실거야.

송현 한구석에 가만히 앉아있다. (수업 일정이 빠르게 처리된다.)

어둠이 잠기기 시작한 텅빈 교실에 우두커니 앉아있던 송현, 옥선의 빈 책상 앞으로 다가선다.

지문 : 옥선아. 미안. 나 역시 이렇게 약속을 못지키고 마는구나. 더 이상 버티내기 힘겹다.

천천히 창가로 다가간다. 텅빈 운동장에 박제된 술한 나비들이 춤춤히 박혀있다. 갑자기 하늘 한구석에서 새벽이 열리듯 맑은 빛줄기가 흐르자 그 무수한 나비들이 날개짓하며 뛰어 오른다.

지문 : 그래. 함께 날아가는 거야. 어디고든, 자유롭게

옥선. 미술실에 송현이 그리던 그림 앞에 주질러 앉아 흐느낀다.

옥선 : 송현아... 안돼...

동틀 새벽 하늘을 나는 송현의 그림을 배경으로 유서.

옥선아!

내 고먼의 결과가 이렇게 초라해서 부끄럽다. 삶이라는 것에 눈을 뜬 이래 한

가지 고문이 집요하게 나를 뒤쫓았다. 사람은 왜 사는걸까? 존재에 대한 물음은 언제나 내게 절망만 안겨줄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내 주위의 슬픈 사물들을 그려나가면서 어렵잖게 그 비역이 풀려나가는 걸 느끼곤 했었다. 무감하게 보아왔던 그 사물들을 그리다보면 그 하나하나의 생명력이 살아 꿈틀대고 생동하고. 나는 놀라웠다. 어쩌면 생은 헛된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것이고 그걸을 그리며 깨달아 나가듯 하나의 내용들을 채워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사색과 독서, 그림과 친구들.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나는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그 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도구가 그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모든 거짓된 것들에 공공 뭉어져야 했다.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선생님들의 눈빛을, 일관되게 규격화된 삶을, 안락만을 강요하는 부모님의 눈빛을 목살하기엔 나는 너무 나약했다. 참 어쩌보면 짧은 생애다. 너의 빛나는 우정 영원하게 가슴에 지니마.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모든 것로부터 자유롭다. 어디로든 훨훨 날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엄마, 아빠 걱정해요.

어둠에 잠긴 교정과 교문이 희미하게 보이고 교문 앞에 서있는 옥선.

옥선 : 그래, 송현아. 너가 못다 이룬 지상의 꿈. 내가 대신 이룰게...

## 하얀 나비

최해옥

# 1

등교길의 옥선, 나비를 본다.

지문 : 어? 나비... 벌써 봄이 왔구나. 하얀 나비를 제일 먼저 보면 1년 내내 재수가 좋다고 하던데... 참 예쁘다. 어찌 보면 좀 슬픈 것 같기도 하고. 가녀린 모습이 송현이를 닮았구나.

옥선, 몇 년 전 송현과 나비 채집하던 장면을 회상한다.

옥선 : 헉헉, 서라. (포충망으로 나비를 잡는다) 아이고 드디어 잡았다. 이 녀석아 그렇게 재빠르게 도망다니다니 예고 힘들어라. (진지한 표정으로) 그물 위쪽으로 살살 몰아서 가슴을 눌러야지. 아이고 계속 퍼덕거리네. 이봐 고만 진정해. 이제 잡힌 몸이라는 걸 모르겠어?

송현 : 옥선아. 넌 정말 물찬 제비구나. 끝내준다. 난 도저히 못당하겠다. 그런데, 나비를 잡은 모양이지?

옥선 : 그래.. 이 근사한 날개를 보라. 햇빛을 받아서 날개의 검푸른 빛에 무지개가 서린 것 같다. 이 놈 잡으려고 이 몸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냐. 이제 가슴을 눌러야지. (약산 어두운 표정이지만 여전히 활기차다) 아유, 그런데 나비의 숨결이 손끝에 느껴지니까 좀 소름이 끼친다. 살아있는 녀석의 숨통을 강제로 누르다니 끔찍한데. 조금 짹짹하기도 하고, 나비가 나를 원망하겠지? (송현을 보면서)

송현 : 정말, 잔인해.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며) 계속 몸부림치고 있잖아. 옥선아, 우리 그만두자. 까짓 숙제 안해가면 어떠니? 야단 좀 맞고 말지 뭐. 이 나비 놈주자. 응? 그래, 나도 남의 숨통 누르는 짓은 못하겠다.

옥선 : 그 아름답던 날개가 이렇게 쉽게 찢어지다니... 아주 찬란했었는데...

송현, 고개를 숙인다. 송현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옥선, 나비를 놓아주지만 날개가 찢어진 나비는 제대로 날지 못하고 힘없이 날다가 땅에 떨어진다. 옥선, 어두운 얼굴로 지켜보고, 송현은 외면함.

옥선, 회상에서 돌아와 "그 나비는 어떻게 됐을까?" 혼자 중얼거리며 학교로 향한다.

# 2

국사 시간, 선생님이 국사 전반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송현 : 선생님, 5.16에 대해서 군사혁명이라는 말도 있고 쿠데타라는 말도 있던데 그 차이는 뭐예요?

선생 : (귀찮다는 표정, 약간 신경질적으로) 그런데는 신경 쓸 필요없잖아. 정송현. 그런 건 학자들이나 관심가질 문제야. 너희는 그 일이 몇년도에 일어났고 그 뒤에 경제개발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하는 것만 알면 되는거야. 알았어?

송현 : (조금 기어들어가는 소리지만 분명하게) 제가 읽은 책에는요. 역사를 비우는 것은 올바른 역사관을 갖기 위해서라고 써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건에 대한 평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선생 : (감정을 억누르면서) 물론, 송현이가 말한게 중요하기야 하지. 하지만 너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야. 당장 대학을 가느냐 못가느냐잖아. 그런데 일일이 신경 쓰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 (목소리가 높아지며) 이건 전쟁이야. 입시전쟁이란 말 못들었어? 송현이가 그런 문제로 뒷전에 처질때 다른 친구들은 다 송현이를 제치고 나가는 거야. 대학 떨어지면 어떻게 할래? 공장이나 다닐래?

송현 : (고개를 숙인채 말이 없다)...

선생 : 자리에 앉아. 앞으로는 학생 본분에 충실했으면 좋겠어. 그게 다 잘되라고 하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암기 요령을 알려줄테니 잘 들어두도록.

옥선, 송현에게 다가와 위로를 한다.

옥선 : 야, 그 혼수상태. 어쩔 그러냐. 우리가 무슨 쓰레기통이나. 그 재미없는 사실들을 퍼담으려고 하게. 공부처럼 시시한게 또 있을까. 아니, 그리고 전쟁이면 누가 우리편이고 누가 적이야. 우리가 전부 서로 적이란 말이야? (우울한 송현을 바라보고) 송현아, 뭘 그렇게 괴로워하니. 그 남자 원래 그렇잖니. 실력이 없으니까 참고서만 보고 읽어 주는데 내가 참고서에 안나오는 걸 질문해서 화를 낸거야. 이해해라. 고개좀 들어보라니까. 너 또 우는거야? 우리 밖에 나가자.

송현 : 아니야. 울지 않아. (한숨) 학교다니기 정말 싫다. 옥선아. 이게 뭐니. 우리가 뭐 외우는 기계니. 대학 가면 뭐 갑자기 인격자가 되냐? 걸핏하면 공순이 될래 어찌구 하면서 협박하구. 공순이는 인생 실패자구 대학생만 제대로 된 사람이니?

옥선 : 그래. 니 말이 맞다. 우리 엄마는 공장다니지만 사람이 얼마나 좋으시니. 난 우리 엄마가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송현 : 옥선아. 넌 언제나 씩씩하고 당당하구나. 니가 있어서 항상 마음 한구석에 불이 켜 있는 것 같애.

옥선 : (어색해 하며) 정송현 씨가 갑자기 왜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오실까.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그래, 이 형님만 믿어라. 수학 여행가서 혼수상태를 정말로 혼절시켜 버릴게.

송현과 옥선 : (마주보며 웃는다)

송현 :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며) 옥선아, 우리 영화보러 갈래?

옥선 : 뭐? 너 제 정신이니. 아침에는 미선이한테 노트 빌려 달랬다가 거절당하고 이번에는 혼수에게 당하더니 충격이 너무 큰가보구나. 야 그 인간들 그렇거니 해야지 그렇다고 너 같은 모범생이 수업을 빼먹고 극장을 가면 어떻게 하나. 무리하지 말고 영화 본 셈치고 도시락이나 까먹으러 가자.

송현 : 하긴 너까지 야단맞을 필요는 없지. 그냥 나 혼자 갈게.

옥선 : 뭐야? 혼자 가? 애가 정말이네. 송현아, 내가 정말로 원한다면 함께 가줄 수는 있어. 근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니? 미선이하고 혼수 탓만은 아니지? 집에 무슨 일이 있니?

송현 : 아니, 일이라기 보다 그냥... 사실은 아침에 엄마하고 싸웠어.

옥선 : 네가 엄마하고 싸워? 야, 정송현 발전했네. 엄마 말이면 꿈쩍도 못하더니.

송현 : (희미하게 웃으며) 말이 싸운거지 내가 엄마의 상대가 되냐. 일방적으로 당하다가 뺨을 맞았지.

옥선 : (눈이 휘둥그래져 쳐다본다)

# 3

송현, 아침 장면 회상

방에서 그림 그리는 송현

엄마 : 아유, 우리 송현이 일찍 일어났네, 아니!

송현 : (당황한 표정으로 뒤돌아 본다)

엄마 : (얼굴이 굳어져) 송현아, 그림 그리지 않기로 엄마와 약속했었지.

송현 : (고개를 숙인채 말이 없다)

엄마 : 엄마는 실망했다. 우리 송현이가 엄마와의 약속을 어기다니...

송현 : (용기를 내서) 엄마,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림을 그리지 않는 나는 겁쟁이 같아요. 그림을 그릴 수 없는 나는 정송현이 아닌 다른 뭐예요. 엄마, 약속을 어긴 건 죄송해요. 하지만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는 건 참을 수가 없어요. 송현이는 그리고 그리고 또 그리고 싶어요. 나의 회색에 더할나위 없는 아름다움을, 자유를, 사랑을 그리고 싶어요. 엄마 허락해 주세요.

엄마 : (다정한 얼굴로) 송현아, 엄마는 너를 누구보다도 사랑한다. 네가 그림을 잘 그리고, 그리고 싶어하는 것도 알고ings어. 하지만 그림은 취미로도 할 수 있잖아. 그걸 꼭 직업으로 가질 필요는 없잖아. 의대를 들어간 다음에 미술반에 들어가서 취미 활동을 하면 되잖아. 넌 아빠의 병원을 물려받아야 해. 엄마 말 알겠지?

송현 : 엄마. 나는 의대에 가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 아픈 모습 보는 게 싫어요. 피를 보고 싶지 않다구요. 무서워요.

엄마 : 그런 건 다 극복할 수 있어. 어찌자구 넌 그렇게 어린애 같은 소리를 늘어놓니? 자, 엄마가 이번엔 없던 일로 하겠다. 하지만 더 이상 엄마와 아빠를 실망시키지 마라. 네게 이 병원을 물려주는게 아빠와 엄마의 꿈이라는 걸 모르지 않겠지?

송현 : 싫어요 정말. 난 싫단 말예요! (소리를 지른다) 나는 엄마 아빠의 인형이 아니에요. 그냥 정송현이에요. 제발 나를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제발 나를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제발 제발 부탁이에요. (엄마 놀라는 모습)

엄마 : (송현의 뺨을 때리며 소리친다) 뭐 인형? 그냥 놔둬? 듣자듣자하니까, 못하는 말이 없네. (잠시 침묵, 송현 놀라서 쳐다본다) (엄격하면서도 미안한 얼굴로) 다시는 그렇게 버릇 없는 소리 하지마라. 뺨을 때려서 미안하다. 엄마는 너를 사랑하고 네 장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한 끝에 의대를 결정한 건데 네가 너무 몰라줘서 화가 났었고, 그리고 인형이라니 그런 소리는 엄마를 모욕하는 거야.

송현 : (엎드려서 흐느낀다) 싫어, 싫어, 정말 싫단 말이야.

옥선 : 그랬구나.

송현 :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리고 싶어. 아니면 먼지나 모래가 되어버렸으면 좋겠어. 지렁이나 달팽이 같은 건 대학에 안 들어가도 되고 좋을거야.

옥선 : 송현아. 그래 영화 보러 가자. 점심 사먹으러 가는 척하고 나갔다가 종례시간에 맞춰서 돌아오지 뭐.

송현 : 이러다가 너한테까지 피해를 입히지 않을까 몰라.

옥선 : (웃으며) 내가 피해볼 게 뭐 있니? 대학도 안가는데. 가자 가자! 이 전쟁터를 빠져나가 사랑과 낭만과 젊음이 있는 자유의 거리로! 가자!

송현 : (옥선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 # 4

##### 교무실

담임 : 나 참, 뭐 이런 녀석들이 다 있지. 수업을 빼먹고 영화관엘 가? 기가 막혀서. 게다가 정송현이 넌 임마 지난 번에도 성적이 떨어지더니 이제는 수업을 제껴? 제 정신이냐? 대학 갈 놈이 이게 무슨 짓이냐. 이래가지고 서울대 갈 수 있겠어? 어.

옥선 : 선생님, 제가 송현이를 데리고 간 거예요. 재미있는 영화가 있다고 억지로 잡아 끈 거예요.

선생 : 그래?

송현 :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 : 넌 가만 있어.

송현 : 선생님, 송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송현이네 집에 연락하면 부모님이 너무 놀라실 거예요. 송현이는 용서해 주세요.

선생 : 그래, 넌 대학도 안 가는 애가 입시생을 꼬셔서 극장엘 가? 도대체 무슨 심보냐? 못먹는 밥에 재 뿌리자는 거야? 네가 못가면 다른 사람이라도 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될 게 아니야. 근데 물귀신처럼 송현이까지 데리고 나가 영? 도대체 인간성이 틀려 먹었어.

송현 : 선생님.

선생 : 넌 교실로 돌아가. (옥선에게) 넌 못돼도 보통 못된애가 아니구나. 아주 많이 뼈뿔어졌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송현 : 선생님.

선생 : 빨리 돌아가라니까. 집에 연락은 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박옥선 같은 애와 어울리지 말도록. 너는 옥선과 같이 다른 애야. 어떤 사람을 사귀어야 너한테 도움이 될 지 모르겠니? 자 빨리 가. 다음부터 이리저리 마. (송현의 등을 떠민다)

옥선 : (고개를 숙이고 있다)

선생 : 무라고 말 좀 해보시지?

옥선 :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선생 : 넌 도대체 가정 교육을 어떻게 받은 애냐. 하기는 아버지가 없는 결손 가정이니 가정 교육인들 제대로 받았겠냐?

옥선 : 이번 일하고 결손 가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선생 : 뭐? 상관이 없어? 야, 너 왜 이렇게 건방지니? 응?

옥선 : 수업시간을 빼먹은 건 잘못이지만 아버지 안계신 걸 들먹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선생 : 뭐, 들먹여. 이런 시건방진 놈. (출석부로 옥선을 내려친다.)

옥선 : (선생을 뺨히 노려보는 옥선. 때리지 않으면 말이 안나오시나 보죠?)

선생 : 뭐야, 이 새끼가 이거 보통이 아니네. 이게 아주 악질이야. 그래 말이 안나온다. (마구 때리는 선생, 옥선 쓰러진다.)

교실, 옥선의 퇴학을 이야기하는 아이들. 송현 그 이야기를 듣고 창백해지며 자리에서 일어선다. 교무실의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는 송현.

교무실의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는 송현

선생 : 네 이야기가 사실이더라도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송현 : 왜요? 서류 처리가 다 끝났어. 그리고 너는 대학에 가야되는 사람이야. 행동발달 사항에 좋지 않은 기록이 올라가면 내신에 지장이 있다. 그냥 잘 처리됐다고 생각하고 조용히 공부나 열심히 해. 어떻게 그럴 수가... (비틀거리며 교무실을 나온

다)

# 5

환상. 서로 목을 조르는 교실. 대학이라는 간판이 있는 지옥. 다들 짐승이 되어 서로를 노려보고 있는 위를 옥선이 나비가 되어 찬란하게 날아다닌다.

송현 : 아아, 싫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공포에 질려서 흐느껴 운다) 옥선아. 나 때문에 네가... 옥선아, 넌 이제 자유로워졌구나. 나도 데리고 가줘. 저 찬란한 햇살 속에서 나도 날고 싶어. 내 손을 잡아줘.

송현, 날아오른다. 날개가 찢어진 나비가 되어 옥상에서 떨어진다. 아래로 곧장.

## 새벽을 여는 함성

김 지 나

노동이다 노동  
아니 징역 3년을 받은 죄수에게  
던져진 가혹한 형벌이다

새벽녘 어제의 달이 미쳐  
지지도 않을  
무거운 하늘을 이고, 돌 깨려 간다.

죄수번호 21060, 소속 00여자수용소  
손이 부르듯도록 머리가 깨지도록 돌을 켜다.  
선생님들은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열심히 쉬지말고 파보라고 하시지만  
내 앞에 쌓이는 건  
내 손에 쥐어지는 건  
쓰잘 데 없는 자갈뿐이다

사랑이란 단어, 잊은 지 오래고  
꿈이란 풍선, 터져버린 지 이미  
오래다.

보물찾기 - 대학  
지각이 아무리 변화해도  
놀이 대학이 되진 않는데...  
나같은 바보는 모를 세상이다.

어스름한 새벽 별 보며 학생들 지친듯 띄엄띄엄 등교하는 모습

아이구! 배고파  
실험이고 자시고  
밥이나 먹었음

누가 아니래  
도시락 까먹을 시간도  
없잖아!

학생1

학생2

쉬는 시간 풍경 이동수업을 준비한다

엄마는  
좀 어떠시니?

그냥, 그래.  
쉽게 날 병도  
아니고

오늘 실험....  
생각만 해도 끔찍해

송현

옥선

복도를 걸으며

시무룩한 송현

생각하구 자시구 할께  
뭐 있니? 암튼 넌 그계  
병이야

과학실

옥선, 송현의 어깨를 툭 치며

학생 두서너 명이 가까워 온다

저번 시간에 자세히 공부했으니  
오늘은 여기 이 차트를 봐가면서  
실험을 시작하세요.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고...

어! 그래. 송현이

도구를 물끄러미 보는  
송현.(옆으로)

손을 든 송현 앞 얼굴

저- 나비의 날개빛이 신비해서요  
그 빛깔을 내는게 뭔지...

자신없는 표정의 송현

의아해 하는 가까이 있는 반 친구들 얼굴



그런 건 시험에 안나올  
테니 신경 끊도록  
여기선 복제 순서와 유의점만  
암기하면 돼!  
알겠죠?

에  
에

송현  
책상맡으로 손을 움직거린다  
당황해 하며 그 손을  
물끄러미 본다

애! 뭐부터  
한다 그랬지?

말 시키지마  
나비가 날라가겠어

침울한 송현의 표정

웅성 웅성

한낱 친 없는 나비조차  
자유를 위한 처우의 문부건을  
잊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손에 쥐어진 나비 c.u.

실험하는 모습 송현조 부각

애, 다 저녁때  
어딜가려구?

물감이 갑자기  
떨어져서

회상부분

너 또 물감타령이니!  
대학 갈 생각을  
해야지, 이제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송현

전 그림이 좋아요  
미대가면...

애가 점점. 미대는 너 같은애가  
가는 데가 아니라니까

805호 미정이처럼  
대학을 가야겠는데 머리가  
돌인 애들, 억지로라도  
대학 보내려 시작하는게  
그림이야!

또 그 소리하면

엄마, 제발...

풀죽은 송현 머리 위로

송현, 절망감에  
휩싸인다-교실

<p>송현아! 옆에 알콜좀</p>	<p>그래</p>
<p>옆의 학생과 놀라는 송현</p>	
<p>퍼득거리는 실험대 위의 나비 송현이 바라본다</p>	<p>너의 자유로운 비상은 네 생의 전부였다 따라서 자유를 결박당한 순간 너의 존재는 허무러져 버렸다 ...내게도 자유는 존재의 절대조건이 아닌가</p>
<p>거의 정리돼 가죠?</p>	<p>반장은 종례 후까지 실험보고서를 걸어서 나한테 가져오도록 해요</p>

<p>핀 생각을 그리 하루종일 했니?</p>	<p>아냐. 아무 것도 그냥, 좀...</p>
<p>송현, 옥선</p>	<p>송현</p>
<p>옥선아, 노트 좀 빌려줘 필기를 못했거든. 점심시간에 해야겠어.</p>	<p>나야 이미 베린 몸 필기 안한지 오랜걸 너네 조 애들한테 빌려봐</p>
<p>송현, 옥선</p>	<p>안돼! 승부의 세계는 냉혹한 법이었는데 노트 정리도 다 내신 성적인걸 모르니!</p>
<p>경숙아! 노트 좀</p>	<p>뭐</p> <p>옥선, 그 아이에게 노트를 집어 던진다</p>

<p>그걸 말이라고 해. 너 같은 치사한 종자들 때문에 세상이 요모양 요꼴인거야.</p>	<p>아니 저게 니 주제나 파악해. 꼴값도 유분수지 공부도 더럽게 못하는 주제에</p>
<p>저걸 그냥! 무슨 일이야!      쭈근쭈근</p>	<p>옥선아, 그만해!</p>
<p>시끌벅적      벅적      벅적</p> <p>송현, 옥선을 감싸안고 교실을 나오고 아이들 뒤에서 떠들썩하다.</p>	

<p>옥선아, 그런데 미술실이나 가자</p> <p>송현, 옥선의 팔짱을 끼며</p>	<p>세상에 기두 안막혀 인간성이 여기까지 왔으니 종말이 코앞이라니까 코앞!</p> <p>그래야 사는 세상인데 누굴 탓하겠어</p> <p>송현, 옥선 층계를 내려오며</p>
<p>가을 전시회 때 작품낼꺼야?</p> <p>옥선 묻는다</p>	<p>글쎄. 전시회 출품한거 알면 또 한바탕 나리날꺼야</p>
<p>준빈 달 돼가? 송현</p> <p>미술실이라는 표말 보인다</p>	<p>미술실 그냥 그렇지 뭐 옥선</p> <p>미술실안의 모습</p>

<p>아, 언제나 편안한 이 냄새</p> <p>옥선</p> <p>송현, 옥선 미술실에 들어서며 옥선이 말한다</p>	<p>온갖 시름을 잊누나</p> <p>옥선</p>
<p>너 실험안했구나</p> <p>테이블 위에서 필통여니 나비가 나른다</p> <p>내겐 너의 자유를 짓밟을 권리가 없다.</p> <p>손에 있는 나비</p>	<p>아</p> <p>갑작스레 생각난 송현</p> <p>어느 누구도 사랑이란 이쁨으로, 혹은 규범이 간 이쁨으로 타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다 땀겨 날아라! 끝없이 펼쳐진 하늘과 대지를 향해...</p> <p>창가에선 송현, 나비를 날리며</p>

<p>아까 최후의 발악처럼 날개짓하는 나비를 보면서 너무 참혹한 기분에 빠졌었어</p> <p>떠오르는 새벽 하늘을 날아오르는 그림이 걸린 이젤 앞에 앉는 송현</p>	<p>가끔씩 나도 보이지 않는 힘들에 쫓겨 정해진 틀 속으로 떠밀려 드는 걸 느끼곤 해</p>
<p>왜 그래? 일 있니?</p> <p>그림을 그리고 싶어</p>	<p>그래서 박제가 되어가는 나비 모습이 꼭 나처럼 느껴져 버렸어</p> <p>살아 있는 모든 생명들, 그 꿈틀대며 생동하는 모습들을 보면 어떤, 삶의 희열 같은게 느껴져. 그걸 그리고 싶어.</p> <p>의자에서 다시 창을 향하며</p>

<p>미대가면 되잖아!</p> <p>송현, 옥선, 옥선 왈</p>	<p>.....</p> <p>말 없는 송현</p>
<p>오빠 서울 법대, 언니 서울대 영문과 우리 엄마 눈엔 미대는 대학도 아냐!</p>	<p>고집 좀 부려봐! 내 인생 내가 살아요 하고</p>
<p>무서워. 엄마의 차가운 눈빛에 부딪히면 나도 모르게 말문이 닫혀버리는 걸</p>	<p>그래서? 어떻게 할 작정이야</p>
<p>이젠 부근 송현, 옥선</p>	<p>부러워. 날개를 가진 모든 짐승들 물론 어느 시인의 말처럼 자유를 위해 비상해 본 적 없는 사람이 어떻게 노고지리의 피땀한 자유를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p>

<p>바로 저 소리아!</p> <p>소리 크게 들리고 송현의 괴로운 표정</p>	<p>우리 주위에 널려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억압하려 들어 정말 질식해 버릴 것 같아</p> <p>뒷산에 우리 그림그리러 가자, 응</p> <p>조오타, 좋아.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인데 까짓거</p>
<p>날씨 맑고 화창한 뒷동산, 화구를 펼친 두 아이의 모습이 밝게 그려진다</p>	

교무실	아무튼 강심장들이야 강심장	어디 학생이 지 멋대로 수업을 빼먹어 애들이 아주 근본이 글러먹었어
복도에서 본 교무실		야단치는 교사. 고개를 숙인 송현, 옥선
그래 선생이 목터져라 가르치는데 수업을 안들어	영  탁	대체 어떻게 된건지 말이나 들어보자
	책상을 광 친다	
요즘 애들이 갈수록 맹랑하단 말야  교사1	사실은 제가 옥선이더러...	
풀죽은 두 아이 쭈뼛거린다	송현이 먼저 나서며	

아니예요. 선생님 제 잘못이에요	수업 듣기 싫어서 제가 송현이 더러 그림 그리러 가자구
그걸 말이라구 해, 영	이젠 선생님들까지 우수워 보이는 모양이지? 막말로 내가 대학을 포기했다고 쳐! 송현이까지 니꼴루 만들려고 그래?
담임, 옥선의 머리를 책으로 친다	
아니예요.	김선생 아주 따끔하게 혼내서 버릇을 단단히 고쳐 놓으세요.  교사1
송현	얼씨구, 그것도 우정이랴구 눈물 겹다, 눈물 겨워  쫓쫓, 송현이 제가 왜 저렇게 마음을 못잡는지  교사2
	송현, 옥선 머리위로 교사들이 꾸지람 퍼붓는다



시험보는 학생들 모습		시험지를 물끄러미 보는 송현	
우리들에게 꿈은 사치일까?	우리들에게 꿈은 사치일까? 보다 먼 미래를 꿈꾸는 사랑 장님 취급당하고 중요한건 코앞에 닥친 입시라는 괴물 삶이 고작 이런 거라면...		
송현, 시험지 뒷면공간에 낙서	낙서 C.U. 엄마 얼굴이 겹친다		
엄마, 저-	성적이 좀 올랐니?	아니. 너	
응접실 테이블위에 성적표	놀라는 엄마표정		

이 엄마의 꿈이 뭔지 알지? 대학동창회에 온가족이 함께 가는 거야	용케도 니 언니 오빠들이 모두 잘 따라줬어 이게 너 하나 남았다	근데, 대체 이 성적이 뭐니? 어쩔셈이야.
잘 할게요. 다음 시험에는	그 말 믿어도 되겠니?	
그 말 믿어도 되겠니? 그 말 믿어도 되겠니?	머리를 웅크리고 책상에 엮딘 송현	
		김 옥 선
혼돈스러워 하는 송현의 머리위로 엄마의 영상과 목소리		송현



책상 밑에 있는거 꺼내지 못해		
교사, 옥선에게 다가서며		옥선 머뭇거리자 서랍을 뒤지는 교사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라-	누가 건방지게 시험시간에 책을 봐	탁 탁
		그 책으로 옥선의 머릴 치며
자- 신경쓰지 말고 계속 시험쳐요.	그리고 김옥선 시험 끝나고 보자	아 옥선아 어찌려구
교사 고개를 돌리며		송현의 걱정스런 표정

입을 앙다문 옥선	시험보는 다른 아이들	송현의 모습
자, 이제 정리하고 각 1번 시험지 걸어오세요.		
거의 끝나가는 모습과 벨소리		
마지막 시간이죠? 나가지 말고 앉아 있도록	Out and away하고 같은게 뭐였지?	By far 아냐  휴
	시험지 걷는 모습들	

<p>자, 조용히 하고 종이 한장씩 꺼내요 거기에 컨닝한 사람 있으면 주저말고 적도록. 쪽지시험도 내신에 반영되는거 알면서 컨닝하는건 도둑질 행위야</p>	<p>그리고 김옥선, 이리 나와</p>
<p>힘없이 걸어가는 옥선</p>	<p>왜 시험 안봤지?</p> <p>아까보니 저번 시간은 빼먹은 모양인데 그것도 친구까지 꼬셔서 오늘일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징계감이야! 징계감!</p> <p>옥선 말없이 발끝만 바라본다</p>

<p>지가 대학을 가든 말든 그건 니 자유라고 쳐.</p>	<p>그렇다고 그따위로 행동하면 학교규율은 뭐가 되겠어?</p>	
<p>선생님! 학교가 대학을 위해서 있는 건가요.</p> <p>눈을 똑바로 쳐다보며</p>	<p>이게</p> <p>옥선의 뺨을 친다</p>	<p>건방지게 뭘 잘했다고 말대꾸야!</p>
<p>그래요. 전 대학 안가요. 아니 못가요.</p>	<p>학교가 그런 저에게 무엇을 줄 수 있죠?</p>	<p>저도 이따위 학교 더 다니고 싶은 마음 손톱만큼도 없어요.</p>

<p>아니, 저, 저게...</p>	
<p>옥선, 울부짖으며 뛰쳐나간다</p>	<p>송현의 참혹한 얼굴</p> <p>열어섯, 열일곱, 열여덟.....          사람들은 꽃다운 나이라고 하지만          경쟁하여 이긴 자만이 아늑하다는,          어른들의 이기심에 짓눌려          우리는 결코 할만한 꿈보오리일 수 없었다.          개성이 저마다 다르듯 소망도 제각각이건만          우리들을 재는 잣대는 하나- 대학입시!          삶에 눈뜬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서 희망이라는 말보다          절망이라는 말이 친근하게 다가왔다</p> <p>화장실 세면대에서 우는 옥선. 위로하는 송현. 암울하다</p>

<p>송현의 아파트 동네</p>	<p>불꺼진 송현의 방, 아파트 복도에서</p>
<p>모든 사물들 사이로 어둠이 촘촘히          몰려온다. 빛의 알갱이들은 끊임없이 쫓겨가고          내 존재의 공간은 서서히 암흑에 휩싸인다</p> <p>어두운 방안 스텐드만 켜져있고 송현 옆드려 있다.          머리위에 학교에서 있었던 일-교무실에서 혼나던 일, 옥선의 울던 모습- 그려진다</p>	
	<p>갑자기 벌떡 일어난 송현, 불을 켜다 이젤앞에 앉아 그림에 몰두</p>

아니 애가 뭘하느라 저녁먹을 생각도 없지	송현아! 저녁먹자
송현의 방 앞에서	방문을 열고 놀라는 송현
아니, 너	계속 말 안듣고 니 멋대로 할꺼야!
	그림을 찢으며
대체 너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한거야, 뭐야. 그리고 옥선인가 하는 애랑 어울려 다니지마	담임한테 전화왔었다. 제발 정신차려. 아직 안늦었어.
어둡고 참혹한 얼굴로 무감하게 서있다	침대에 벌렁 눕는다

지금이라도 마음만 잡으면 할 수 있단 말야.		아니, 누구지?
	벨소리 크게 들려온다	
누구세요?	저 송현의 친구...	
현관 앞에서	침대에서 몸을 벌떡 일으키는 송현	
옥선인데요... 우리 송현이 있어도 없다.	니가 진짜 친구라면 앞으로 다시 송현이랑 다닐 생각 않는게 도리 아니겠어?	
방문 앞에선 송현	송현이 하얗게 질린 표정으로 서있다	

<p>엄마, 내 인생 내가 산다구요</p>	<p>애 송현아! 어딜가. 어딜 가는 거야.</p> <p>겉옷을 걸치며 현관을 나서려는 송현</p>
<p>어둠에 잠긴 아파트 길 송현, 옥선 말없이 걷는다</p>	<p>옥선아!      마음 쓰지마. 할말이 없구나.      난 끄떡없어 미안하다는 말밖에      그깟일에 마음쓰지마                                  창창한 앞날                                  어떻게 사니?</p>
	<p>봐! 저 별빛. 언제나 변치않는 진리는 있는걸까</p> <p>옥선이 송현의 어깨 감싸며</p>

<p>가파른 골목길 끼고 허름한 집들 늘어서 있다. 어둠에 잠긴 골목길 걷는 송현, 옥선</p>	<p>처음이지 우리집 우리 이렇게 살아</p> <p>초라한 골목, 옥선의 집앞</p>
	<p>잠깐 들어갔다가</p>
<p>엄마, 친구랑 같이 왔어</p> <p>방안에 누워있는 엄마</p>	<p>그래, 근데 어찌누 친구가 왔는데 이렇게...</p>
	<p>아니예요. 어머님..</p>
	<p>그나저나 우리 옥선이가 고생이야</p>

걱정마 엄마 여태 시장다니며 고생한 엄마에 비하면 이까지것 아무 것도 아닌 걸		엄마! 내방에 건너갈게 친구랑 얘기좀...	그러렴
정말 오늘일 괜찮을까?	아무렇게 되도 상관없어.	이 상태론 학교를 계속 다닌다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	
		바보같은 소리 하지마 여태 잘 해와놓고	
그리고 시험은 왜 안봤어	어차피 대학 포기한지 오래야! 기왕이면 나 때문이라도 다른 애들 내신이 오르면 좋잖아.	아- 옥선아	손을 잡는 송현

그나저나 나는 그렇다치고. 요즘 내가 더 힘들어 보여		힘없는 송현의 얼굴	
두려워 부모님들의 기대, 실망 선생님들의 추궁하는 눈빛들이...	그래서 자꾸 무기력해져 그림이고 뭐고.	어떨땐 불쑥 죽고싶다는 생각이...	송현아
		옥선이 감싼다	
힘내. 힘들더라도 이겨내고 나면 그만큼의 결실이 있을거야.	내가 너무 진부했나? 아니야. 하지만 어두 선불리 학교 그만두기 없기야	그래, 그래	맞잡은 굳은 손

절망속에서건 기쁨속에서건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렀다.  
 서운 기대며 버티자던 옥선의 우정만으로는  
 우리들은 에워싼 현실을 극복하기에는  
 너무도 벅찼다.  
 기막고사가 덕쳐올 즈음  
 나는 시험의 공포에서 벗어날 줄 몰랐고  
 지각에, 결석에, 잦은 반항으로 이어지는  
 옥선의 생활 역시  
 백척간두에 선듯 위태위태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옥선에게서  
 불쑥 한통의 편지를 받는 순간,  
 어렵게 버티고 섰던 내 자리는  
 모래성처럼 쉽게 허물어져 버렸다

지나온 장면들이 필름들듯 배경에 깔린다

<p>해가 서쪽에서 뜬거 너 알아?</p> <p>너 또 무슨 영똥한...</p> <p>하교길</p>	<p>이 몸이 네게 편지를 썼거든.</p>
<p>안녕! 집에 가서 봐.</p>	<p>웬일이야? 너</p> <p>침대에 앉아 편지를 읽는다</p>
<p>어. 옥선아!</p>	<p>송현아! 그간 몇번의 김계처분을 하겠다는 담임의 협박에 버티내자던 너와의 약속 떠올리며 빙었었다</p> <p>송현 얼굴 C.U.</p>

그러다가 이제야 흥분하게 떠나야지 마음먹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많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각오했던 일이야.  
 대학! 가면 좋지. 웬지 그곳에는 가을 수학 때 처럼  
 술한 사상이 능군처럼 어려있을 것만 같거든.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내 앞의 현실이라는 걸혼에 도달했어  
 함지에 나뭇 주선주선 담아 한 여늬이건 한 겨울이건  
 시장바닥에 꾸그러 앉은 언덕의 희생위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건 무엇일까?  
 교양 있는 여대생. 그에 걸맞는 강래 남편감도  
 내 주위의 가난한 이웃들  
 그들없이 어떻게 견재할 수 있을까  
 그들의 힘과 노력없이, 거친 노동없이 딸야

<p>이제야 내일이 어디에          있는지 알 것 같아          작은 공장이라도 취직할 생각이야          나를 위해 언덕에게          거늬이 돼달라고 하진 않을꺼야          작은 가정안에서라도          나 스스로 거늬이 되겠어</p>	<p>고민 많고 마음 여런          송현아!          정말 빈다. 모든 고민          훌훌 털고 앞날을          희망차게 바라보며          정리해          미안, 약속 못지켜서</p>	<p>옥선아</p> <p>쓰러져 온다</p>
------------------------------------------------------------------------------------------------------------------------------------------------------------------------------------	--------------------------------------------------------------------------------------------------------------------------------------------------------	--------------------------

<p>옥선이가 하교를          그만 뒀대...</p> <p>송현 아이들 사이로 제 자리엘 걷는다.</p>	<p>담임이 살맛나겠군</p>
<p>그나저나 요번 학기말고사          걱정이야, 걱정</p>	<p>말마, 우리 엄만 이번          성적 떨어지면          너죽고 나죽자 하실거야.</p> <p>자리에 앉은 송현</p>
<p>옥선의 빈자리로 시선</p>	<p>모든 것들이 낯설다          내가 생활하고 숨쉬는          내 공간이 아니다.</p> <p>옥선의 자리 비어있다.</p>



옥선아! 미안, 나 역시 이렇게 약속을  
못지키고 마는구나

창가에 선 송현

그래 함께 날아가는 거야  
어디로든. 자유롭게

어둔 운동장에 한줄기 빛이 흐르고  
총총히 박혀 있던 나비들 날아오른다.

옥선아!

내 고편의 격려가 이렇게 초라해서 부끄럽다.  
살이라는 것에 눈을 뜬 이래 한가지 고편이 집요하게  
나를 뒤쫓았다.  
사람은 왜 사는 걸까? 존재에 대한 물음은  
언제나 내게 절망만 안겨줄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내 주위의 슬픈 사물들을 그려나가면서  
어쩔수없이 그 비밀이 풀려나가는 걸 느끼곤 했었다.

무감하게 보아왔던 그 사물들을 그리다보면  
그 하나하나의 생명력이 살아끓어오르고 생동하고  
나는 놀라웠다. 어쩌면 생은 헛된 것이 아니라  
비어 있는 것이고, 그림을 그리며 깨달아 나가는  
하나의 내용들을 채워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사색과 독서, 그림과 친구들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나는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내게는 그 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도구가 그림이었다.  
하지만 나는 모든 거짓된 것들에 공공 뭉여져야 했다.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선생님의 눈빛을  
일관되게 규격화된 삶을, 안락만을 강요하는 부모님의 눈빛을  
그 모두를 목살하기에 나는 너무 나약했다.  
참 짧은 생애였다.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어디로든 훨훨 날아갈 수 있을 것 같다.

동틀 새벽 하늘을 날아오르는 새벽새들을 그린 송현의 그림 배경으로

송현아-

어두운 미술실. 송현의 이젤 앞에 우는 옥선

그래, 송현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니가 못다 이룬 지상의 꿈.  
내가 대신 이룰께.....

어둠에 잠긴 교정과 교문이 희미하게 보이고 그 앞에 서있는 옥선

### 고 고 교육 현 장

우리는 명문대 입학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학교에 들어 왔다. 선배의 빛난 입시 성적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는 이기주의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는 친구 타도에 이바지 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입시의 지표로 삼는다.

영악한 마음과 빈약한 몸으로 입시의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무시하고 우리의 성적만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아 찍기의 힘과 눈치의 정신을 기른다.

시기심과 배타성을 앞세우고 능률적 찍기 기술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완전히 타파하여 메마르고 살벌한 경쟁정신을 복돋운다.

나의 눈치와 이기주의를 바탕으로 성적이 향상하며 남의 성공이 나의 파멸의 근본임을 깨달아 견제와 시샘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남의 실패를 도와주고 봉사하는 척하는 학생정신을 드높인다.

이기 정신에 투철한 입시 전략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명문대 입학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배에게 물려줄 영광된 명문대 입학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눈치 빠른 학생으로서 남의 실패를 보아 즐기찬 배타주의로 명문대에 입학하자.

19 년 월 일

언제부터 이 땅의 교육이  
이렇게 비교육적이  
되었는지  
모를 일이다

저희가 원하는  
세상은요!

박 상 배

( 교문 밖에서 학교를 바라본 학교 건물의 바깥 풍경 )

신인 교육, 홍익인간이란  
교육이념이 백지화  
된지 이미 오래고

( 복도에서 바라본 학교 안의 장면 )

독선과 이기주의와 시기심,  
극단적인 경쟁심만이  
난무하는 사악한  
땅이 되어 버렸다

( 위와 같은 장면에서 교실반 팻말이 가까운거리로 잡은 장면 )

0 교실안 - 교실 뒷 쪽에서 교단 쪽으로 보이는 장면  
0 학생들의 상반신과 선생님의 모습이 먼거리로 보인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나비 박제 실습을 해 보겠다

책을 보고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참고로 해서  
실습을 시작한다

0 안경을 쓰고 공적인 모습의  
선생님 얼굴  
( 중간거리와 먼거리 사이)

0 선생님 얼굴  
( 가까운거리)

애 핀 좀 빌려줘

안돼  
돈 주고 사라

0 아이들 재미 있다는 듯이 떠들면서 나비에게 알콜주사도 놓고 핀을 꽂기도 한다

알콜 주사는 어디에  
놓는거니

이거는 내가 집에가서  
걸어 놔야지

0 송현이 쪽 ( 중간거리)  
0 재미있게 실습하는 친구들 속에 멍하게 앉아 있다

송현이 핀을 들고 망설이고 있다  
(중간거리)

0 송현이 죽은 나비 옆에 핀을 내려 놓는다  
0 죽은 나비와 송현이 손만 보인다  
0 위에서 내려다본 장면

나는 할 수 없어  
아무리 죽은 나비지만  
핀을 꽂는다는 것은 너무 잔인해

0 송현이 멍하게 죽은 나비를 바라보며 하는 생각

애 뭐하니	
옆자리의 옥선이가 송현이를 탁 치고 놀라는 송현이 ( 중간거리 )	
이리 줘! 내가 해줄게 넌 너무 맘이 여린게 병이다 그런 너의 모습이 좋기도 하지만	
옥선이 송현이의 실험물을 끌어가며 ( 중간거리 )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뭐야
송현이 손을 번쩍들며	나비는 얼마나 멀리 날 수 있습니까
	송현이 (중간거리)

뭐!	그것은 시험에 만나와! 내가 가르쳐 준것만 외워
선생님의 당황하는 얼굴(가까운거리)	선생님의 객관적이고 냉정한 표정(중간거리)
송현이의 당황하는 얼굴과 친구들의 비웃는 표정(복수추적거리)	
따-르 -르 --릉	
수업끝 종이 울리면서 왁자지껄한 교실 풍경 (약간 위에서 본 장면)	
미선아! 생물노트 좀 빌려줘 나비가 불쌍하다는 생각에 아무것도 정리를 못했어	싫어!
송현이 옆의 친구에게( 중간거리 )	미선이 뻘뻘스럽게(가까운거리)

송현이 당황하는	얼굴 표정의 변화를 3칸에	걸쳐 처리
조명의 변화 가까운거리 약간 밝게	거리의변화 중간거리 조명 中	배경처리 없이 먼거리 어둡게
휘-이 - 익	탁	옥선이 화가나서 서있다 ( 중간거리 )
미선이 공책으로 얼굴을 맞는다(중간거리)		
그것좀 보여주면 어머니 너희들이 보여달라면 송현이는 항상 보여 줬잔아		옥선아! 그만해
옥선이 화가나 서있고 송현이는 옥선이를 잡고 말리며, 미선이는 당황하는 표정		
저런 것들은 혼 좀 나야해! 정말 인간 같지도 않아!		옥선아! 나가자
송현이 서있는 옥선이를 잡아 끈다		

학교 건물을 배경으로 나비가 날고 있다( 아래에서 위로 바라본 장면 )	
송현이 날고 있는 나비를 바라본다 (중간먼거리, 약간 아래에서 위로)	나비처럼 훨훨 날고 싶어 자유가 그리워... 구속이 없는 자유가... 시험, 입시, 내신성적 이 모든 지겨운 것들이 없는 꿈의 세계, 이상의 세계로 날고싶어... 날고 싶어...
	송현이 날고 있는 나비를 보며(중간거리)

우리 그림 그리러 가지 않을래	다음 시간은 영어시험인데
송현이 옥선이를 바라보며(중간거리)	옥선이 망설이며
우리 오늘 하루쯤 자유로워 보자 지겨운 시험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야	너와 나만이 소중한 시간을 갖는거야
송현이 옥선이를 바라보며(중간거리)	
	그래! 가자!
옥선이 망설이는 모습 (중간거리- 조금 어둡게)	옥선이 승락하는 모습 (조금 가깝게 - 조명 밝게)
옥선아! 너 아까 너무했어 미션이는 내신성적 때문에 노트를 빌려주지 않으려 했을텐데. 불쌍하잖아	치사한 년
둘이 손잡고 걸어가는 뒷 모습. 하늘에는 나비가 날고 있다( 먼거리 )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잖은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갭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주며 쉬임 없는 날이여	
동산에 둘이 앉아 있다( 아주먼거리)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눈 속 깊이 꽃 봉오리가 움직거려 제비떼 까맣게 날아 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	
동산에 둘이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다(먼거리)	
나는 미대에 가고 싶어	한 바다 북판 용솨음 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에는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
송현이는 나비가 나는 모습을 옥선이는 풍경화를 그리고 있다(중간거리)	



<p>가면 되잖아 넌 성적도 좋고 그림도 잘 그리는데</p> <p>송현이(중간거리)</p>	<p>엄마는 인류대학 영문과에 가라서 대학가서 미국으로 유학도 가라하고</p> <p>송현이(중간거리)</p>
<p>송현이 하늘을 날고 있는 나비를 부러운 듯 바라보고 있다</p>	
<p>나는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꼭 누군가의 대리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p>	<p>마치 아까 박제된 나비처럼 나도 점점 박제가 되어가는 것 같애</p>
<p>송현이 나비를 바라보며 독백같이 (중간거리- 조명 약간 어둡게)</p> <p>둘이서 등산에 앉아 있는 모습(약간먼거리 -약간 어둡게)</p>	

<p>어두움에서 밝아오는 표현</p>			
<p>교무실 입구 복도의 모습</p>			
<p>김선생! 담배 있는가?</p>	<p>좀 사서 피우서</p>	<p>여기 물좀 줘</p>	<p>떠다 먹어라</p>
<p>교무실 안 풍경: 송현이와 옥선이 췌 지은것 같이 서 있다(먼거리)</p>			